

1일 1지문으로 1등급 달성 - 배인호 초격차(超格差) 국어 제공

082

新수능 국어 최적화 기출 분석

2024학년도 EBS 수능완성 실전모의고사 2회 1~5 풀이시간 :

풀이 전 이해도 : 수업 후 이해도 :

고전 논리에서는 어떤 진술도 참 또는 거짓이라는 두 개의 진리치만 갖는다. 참과 거짓은 모순 관계이므로 어떤 진술이 참이라면 그 진술을 부정할 경우 진리치는 거짓이 된다. 그래서 모든 진술은 참이거나 거짓이라는 배중률과, 하나의 진술이 참이면서 동시에 거짓일 수 없다는 모순율은 고전 논리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했다. 그런데 ㉠이 문장은 거짓이다.(L)처럼 자신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거짓말쟁이 진술은, 고전 논리에 따를 경우에는 진리치를 단정할 수 없다. 왜 그럴까?

배중률에 의해서 L은 참이거나 거짓이어야 한다. 우선 L이 참이라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이 문장은 거짓이다.'가 참이 되어 L은 거짓이 된다. 즉 L은 참이라고 가정하는 동시에 결론은 거짓이라는 의미가 되어 모순율을 위반한다. 따라서 L이 참이라는 가정은 버려야 한다. 이번에는 반대로 L이 거짓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이 문장은 거짓이다.'가 거짓이 되어 L은 참이 된다. 이 또한 모순율을 위반하므로 L이 거짓이라는 가정도 버려야 한다. 하나의 진술에서 상호 모순되는 두 개의 진술이 도출되는 것을 논리적으로 역설이라고 한다. 거짓말쟁이 진술에서는 '참이라고 가정하면 거짓'과 '거짓이라고 가정하면 참'이 도출되는데 이를 거짓말쟁이 역설이라고 한다.

자기 자신을 말하는 문장 구조가 사용된 진술을 자기 지시성이 있는 진술이라 한다.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는 한국의 수도가 어디인지 말할 뿐 자기 지시성은 없다. 하지만 '이 문장은 한국어 문장이다.'는 자기 자신을 가리키며 그것이 어떤 언어로 이루어져 있는지 말하고 있으므로 자기 지시성이 있다. 20세기 초 타르스키는 거짓말쟁이 진술에 사용된 자기 지시성 때문에 역설이 생긴다고 보았다. 그는 진술의 진리치에 대한 고전 논리의 가정을 고수하는 관점에서 거짓말쟁이 역설을 해결하기 위해 '언어위계론'을 제시하였다.

언어 위계론에서 '이 문장이 있다.'는 어떤 사실에 대해 말하는 진술인 대상 언어라 한다. 반면 '이 문장이 있다.'에 '거짓이다'가 덧붙여진 L은 메타언어라 한다. 메타언어란 대상 언어에 대한 참 또는 거짓을 말하는 진술로 대상 언어에 '참이다' 또는 '거짓이다'라는 진리 술어를 덧붙여 만든다. 이때 메타언어는 대상 언어보다 위계가 더 높다. 만약 메타언어 뒤에 진리 술어를 하나 덧붙여 새로운 진술을 만들면, 기존의 진술은 대상 언어가 되고 새로운 진술은 메타언어가 된다. 이러한 이론을 전제로 삼아, 그는 메타언어에 포함된 진리 술어는 자신보다 낮은 위계인 언어만 언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 결과 자신에 대해서 참이나 거짓이라고 말하는 진술은 있을 수 없기에 거짓말쟁이 역설은 해소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타르스키가 언어 위계론을 제안하자 일부 학자들은 ㉡고전 논리에 없던 또 다른 규칙을 추가한 것을 지적하면서, 이 때문에 고전 논리의 가정 안에서 역설이 해소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며 이론의 한계를 주장했다. 한편 어떤 학자들은 자기 지시성이 역설의 원인이 아니라는 반론을 제기했다. '이 문장은 참이다.'는 자기 지시성이 있지만 역설이 발생하지 않는다. 참이라면 참일 것이고, 거짓이라면 거짓이기 때문이다. 또는 두 진술로 구성된 '뒤 문장은 거짓이다. 앞 문장은 참이다.'의 경우 두 진술에는 자기 지시성이 없어도 역설이 발생한다. 앞의 진술을 참이라고 가정하면 뒤의 진술인 '앞 문장은 참이다.'는

거짓이 된다. 이는 참이라고 가정하는 동시에 결론은 거짓이 되어 모순율을 위반한다. 반대로 앞의 진술을 거짓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모순율을 위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세기 후반에는, 진술의 진리치에 대한 고전 논리의 가정을 포기하는 관점에서 거짓말쟁이 진술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크립키는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닌 진리치를 가진 진술이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거짓말쟁이 진술이 그러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프리스트는 참과 거짓인 진술 이외에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술이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거짓말쟁이 진술이 그러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1. 타르스키의 관점에서 ㉠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은 진리 술어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 ② ㉠은 '이 문장이 있다.'보다 위계가 낮다.
- ③ ㉠ 뒤에 '거짓이다'를 덧붙이면 ㉠은 대상 언어에 속하지 않게 된다.
- ④ '거짓이다'가 '이 문장이 있다.'를 언급한 것이라고 본다면 ㉠에 나타난 역설은 해소될 수 있다.
- ⑤ ㉠ 뒤에 '참이다'를 덧붙여 새로운 진술을 만들면, ㉠에 포함된 '거짓이다'는 새로 만들어진 진술에 대해 언급할 수 있다.

2. 문맥상 ㉡의 의미로 적절한 것은?

- ① 참과 거짓이 모순 관계라고 규정한 것.
- ② 진술을 메타언어나 대상 언어로 구분한 것.
- ③ 진술의 진리치가 두 개보다 많을 수 있다는 것.
- ④ '거짓이다'라는 의미의 위계가 '참이다'보다 높다고 정한 것.
- ⑤ 진리치가 참인 진술의 개수가 거짓인 진술의 개수보다 더 많다고 간주한 것.

3. 거짓말쟁이 진술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크립키는 배중률에 부합하는 사례로 거짓말쟁이 진술이 있다고 주장했다.
- ② 프리스트는 모순율이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에서 거짓말쟁이 진술을 설명했다.
- ③ 타르스키와 크립키는 거짓말쟁이 진술이 참이면서 동시에 거짓인 진술이라고 보았다.
- ④ 크립키는 프리스트와 달리 고전 논리를 지지하는 관점에서 거짓말쟁이 진술을 설명했다.
- ⑤ 타르스키와 프리스트는 거짓말쟁이 진술에는 자기 지시성이 사용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4. 윗글의 내용을 <보기>와 같이 정리할 때,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자기 지시성 있음.	자기 지시성 없음.
역설임.	A	B
역설이 아님.	C	D

- ① 고전 논리에서는 A에 해당하는 진술을 참이라고 하면 거짓이 되고 거짓이라고 하면 참이 된다.
- ② '뒤 문장은 거짓이다. 앞 문장은 참이다.'라는 진술은 B의 사례에 해당한다.
- ③ '이 문장은 한국어 문장이다.'라는 진술은 C의 사례에 해당한다.
- ④ '신라의 수도는 경주이다.'라는 진술은 D의 사례에 해당한다.
- ⑤ C와 D에 해당하는 진술은 진리 술어를 포함하지 않는다.

5. 윗글과 <보기>를 함께 고려할 때,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고등학생인 갑돌이가 '모든 고등학생은 거짓말만 한다.'(T1)라고 진술한 경우, 이 진술은 거짓말쟁이 역설로 많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문장은 거짓이다.'와 달리 ㉠갑돌이의 진술은 역설로 볼 수 없다. 우선 T1을 참이라고 가정한다면, 갑돌이는 모든 고등학생에 포함되므로 T1은 거짓이 된다.

이제 T1을 거짓이라고 가정하자.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모든 a는 b이다.'에 대한 거짓인 진술은 '어떤 a는 b가 아니다.'이다. 즉 T1에 대한 거짓인 진술인 '어떤 고등학생은 참말을 한다.'(T2)가 참이면 T1은 역설이 된다. 하지만 T2가 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역설로 볼 수 없다.

- ① T1과 T2의 '고등학생'에 갑돌이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 ② T2의 '어떤 고등학생'이 갑돌이일 수가 있기 때문이다.
- ③ T2의 '어떤 고등학생'에 갑돌이의 친구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 ④ T2의 '어떤 고등학생'에 갑돌이가 포함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 ⑤ T1과 T2의 '고등학생'에 갑돌이의 친구가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